

편집 및 발행인 : 조정희 · 발행처 :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·지원센터

총괄 : 김동환 · 감수 : 이연경 · 전화번호 : 051-797-4913 · E-mail : kdong@kmi.re.kr

목 차

▶ 아세안 물류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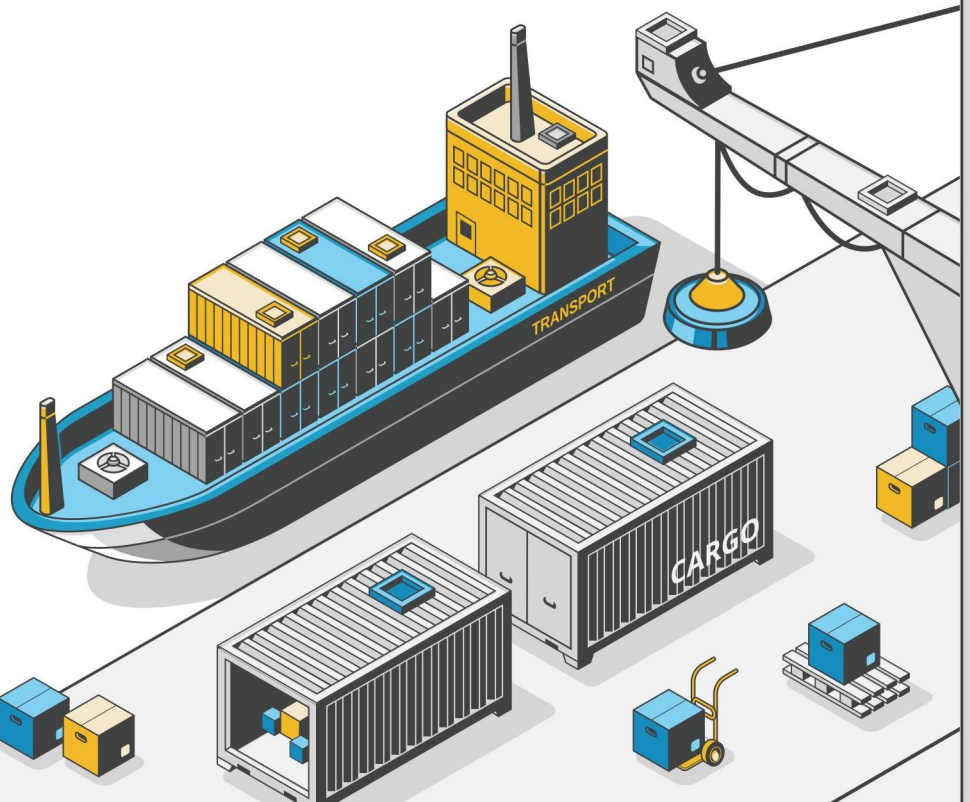
- 인도, 비진잠항 중심 인도양 환적 허브 육성 본격화
- 호치민시, QTM 국제항만 건설 착수... 베트남 남부 통합 물류거점 구축 본격화

▶ 공지사항

- 「국제물류 정보포탈」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안내

▶ 유럽 물류시장 동향

- PSA, Baltic Hub '컨' 터미널 복합운송 연계 강화 위해 즈바시네크 인터모달 터미널 착공



인도, 비진잠항 중심 인도양 환적 허브 육성 본격화

▶ MSC 투자로 비진잠항 개발 본격화

- MSC는 터미널 운영 자회사인 TiL(Terminal Investment Limited)을 통해 인도 남부 비진잠항(Vizhinjam Port) 운영사(AVPPL) 지분 49%를 약 13억9,700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함
- 이번 투자는 인도 항만 인프라 부문 최대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(FDI)로, 비진잠항 개발과 인도양 환적 허브 육성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됨
- 비진잠항은 '24년 말 운영을 시작한 인도 최초의 심수(Deep Draft) 메가 환적항으로, 현재 연간 처리능력은 160만TEU 수준이며 2단계 개발 완료 시 약 570만TEU로 확대될 예정임
- 거래는 관련 규제기관 승인 등 통상적인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완료될 예정임

▶ 비진잠항, 인도양 핵심 환적 허브로 성장 추진

- 비진잠항은 운영 개시 18개월 만에 누적 물량 200만TEU를 처리한 인도 최초의 항만으로 기록됨
- '25~'26 회계연도에는 130만TEU를 처리했으며, '26년 6월에는 1,000번째 선박이 입항하는 등 빠른 물동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
- 비진잠항은 유럽-페르시아만-극동을 연결하는 동서(East-West) 주요 해상항로에서 약 10해리 떨어진 전략적 입지에 있음
- 또한 수심 18~20m와 자동화 하역설비, AI 기반 해상교통관제시스템(VTMS)을 갖춘 인도 최초의 자동화 항만으로 조성돼 인도양 환적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음

▶ MSC 투자에도 비진잠항은 개방형 환적항으로 운영

- 비진잠항 운영사(AVPPL)를 보유한 아다니항만(APSEZ)은 MSC 투자 이후에도 비진잠항이 특정 선사 전용이 아닌 개방형(Common User) 환적항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함
- TiL은 전용 터미널을 운영하는 대신 투자 지분에 비례한 수익을 배분받고 운영사 이사회에 참여할 예정임
- TiL이 지분을 보유한 Adani Ennore Container Terminal도 현재 CMA CGM과 Maersk를 포함한 다양한 글로벌 선사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▶ 비진잠항, 신규 환적 물동량 확보 기반 강화

- 아다니항만(APSEZ)은 MSC와의 협력을 통해 추가 물동량 확보와 조기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
- 특히 현재 동남아시아 환적항을 이용하는 방글라데시 화물 유치와 동아프리카 항로 경쟁력

강화, 중계(Relay) 화물 확대 등을 주요 효과로 제시함
 - 비진잠항은 인도양 주요 해상항로와 인접한 입지를 바탕으로 신규 환적 물동량 확보가 기대됨

➤ MSC, 인도 내 터미널 네트워크 확대 전망

- 이번 비진잠항 투자는 MSC가 APSEZ와 문드라(Mundra) 및 에노르(Ennore)에서 추진 중인 기존 터미널 협력에 추가되는 투자임
- MSC는 Bollore Africa Logistics 인수를 통해 확보한 투티코린(Tuticorin) 컨테이너터미널 지분 49%도 보유하고 있음
- 이에 따라 MSC는 인도 내 터미널 운영 기반을 확대하며 인도 내 터미널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

➤ 인도 환적 허브 경쟁력 강화 및 역내 물류 흐름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

- MSC의 비진잠항 투자는 인도양 환적 허브 처리능력 확대와 인도 항만 경쟁력 강화 추세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
- 비진잠항은 처리능력 확대와 자동화 인프라를 기반으로 인도양 지역의 환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
- 또한 비진잠항의 처리능력 확대와 글로벌 선사들의 터미널 투자는 향후 인도양 지역의 환적 네트워크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
- 이에 따라 국내 해운·물류기업과 정부는 인도 환적 허브의 성장과 역내 물류 네트워크 변화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

호치민시, QTM 국제항만 건설 착수... 베트남 남부 통합 물류거점 구축 본격화

- ▶ '26년 7월 5일 호치민시는 까이몹-티바이(Cái Mép-Thị Vải) 심해항만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 핵심 공급망 거점인 QTM 국제항만(QTM International Port) 착공
 - 이번 사업은 총 6조 9천억 동(약 2억 6천만 달러)을 투자해 연간 1,600만 톤 처리 규모의 국제항만과 복합 물류시설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임
 - 특히 항만 개발과 함께 창고·냉동창고·보세창고·컨테이너화물조작장(Container Freight Station, CFS)등을 포함한 통합 물류 생태계를 조성하고, 자동화 설비와 디지털 운영 시스템을 도입한 스마트항만을 구축해 항만·보관·운송·유통 기능을 통합 플랫폼으로 연계할 계획임
 - 특히 최근 호치민시 행정구역 확대 이후 약 89개의 항만 네트워크를 보유한 대규모 항만·물류 허브로 재편됨
 - 이에 따라 호치민시 내 화물 및 원자재 운송 수요가 증가하면서 '26년 상반기 해상·내륙 수로 화물 처리량은 전년 동기 대비 7.3% 증가했으며,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물류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
 - 뿐만 아니라 빈즈엉의 제조업 기반 산업단지와 바리아-붕따우의 항만·에너지 인프라가 연계되면서 제조-물류 연계가 강화되고,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가 예상됨
 - 이에 따라 QTM 국제항만 건설을 통해 베트남 남부 공급망 경쟁력을 높이고 물류 허브 기능을 강화할 방침임

QTM 국제항만 프로젝트 조감도



자료: <https://asianews.network> (검색일: 2026.06.23.)

- ▶ 특히 2단계 국제항만 개발을 통해 까이몹-티바이 심해항만의 허브 기능 강화 예정
 - QTM 국제항만은 약 80ha 부지에 총 8개 부두(안벽 총연장 1,817m)와 연간 1,600만 톤 처리능력을 갖춘 국제항만으로 개발될 예정임

- 1단계('26~'29년)에는 최대 100,000DWT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3개 부두와 연간 750만 톤 처리시설을 우선 구축하며, 첫 번째 부두는 '28년 1분기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임
- 2단계('30~'33년)에는 총 8개 부두를 완공해 처리능력을 확대하고, 향후 다양한 화물 수요에 대응 가능한 국제항만으로 개발할 계획임
- 항만 운영 초기에는 농산물, 곡물, 사료 원료, 비료, 철강 등 벌크화물 중심으로 운영될 계획이며, 향후 컨테이너 처리 기능도 확대해 화물 처리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임
- 항만과 함께 약 20만㎡ 규모의 물류센터, 냉동창고, 보세창고, CFS 등을 구축해 보관·운송·유통을 연계하는 종합 물류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할 계획임
- 또한 '27년 완공 예정인 푸옥안교(Phước An Bridge)를 포함해 호찌민 제3·4순환도로, 롱탄 국제공항 등 주요 교통 인프라와 연계해 호찌민시-동나이-메콩델타를 연결하는 남부 복합물류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임
- 이를 통해 까이몹-티바이 항만은 단순 해상운송 거점을 넘어 항만·물류·내륙운송 연계를 통해 남부권 복합물류 허브 기능을 확충할 것으로 기대됨

● 본 사업은 현재 베트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 물류 전략과의 연계를 통해 베트남 남부 공급망 경쟁력 확보 기대

- 베트남 정부는 현재 GDP의 약 14~16%에 달해 국제 평균보다 높은 물류비를 국가 경쟁력의 주요 제약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, 항만·물류 인프라 확충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
- 특히 이번 사업은 「Resolution No.36」과 「Logistics Services Development Strategy to 2030」에 부합하는 핵심 프로젝트로, 물류비 절감과 해상물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남부 제조업 공급망과 수출입 경쟁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- 또한 스마트항만 기반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함께 운송비 절감, 일자리 창출,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
- 향후 QTM 국제항만이 본격 운영될 경우 까이몹-티바이 항만 클러스터의 허브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
- 이를 기반으로 베트남 남부 제조업과 수출입 물류를 연계하는 핵심 공급망 거점으로 발전하며, 국가 물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

참고자료: <https://www.vietnam.vn> (검색일: 2026.07.07.)

PSA, Baltic Hub '컨' 터미널 복합운송 연계 강화 위해 즈바시네크 인터모달 터미널 착공

- PSA International은 EU의 철도 기반의 복합운송 전환 정책 기조와 Baltic Hub 컨테이너 터미널의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세에 따라 항만과 철도운송 연계 전략을 추진
 - EU는 공로운송 중심의 내륙운송 구조를 철도운송으로 전환하고 복합운송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임
 - 또한 EU는 복합운송 지침 개정을 통해 물류 부문에서의 복합운송을 장려하고 있으며, 인프라 측면에서 유럽 횡단 운송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
 - EU의 내륙운송 구조 전환 기조에 따라 PSA International은 그단스크항 내 Baltic Hub 컨테이너 터미널(이하 'Baltic Hub로 약칭')의 화물 처리능력과 철도 기반의 복합운송을 연계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임
 - 특히 Baltic Hub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'23년 2.051백만 TEU, '24년 2.24백만 TEU, '25년 2.77백만 TEU로 '25년에는 '23년 대비 35.0% 증가함

- PSA International은 계열사인 Loconi Intermodal S.A.와 파트너사의 복합운송 인프라를 통해 내륙운송 네트워크 확대 기반의 Baltic Hub 경쟁력 강화를 도모
 - PSA International은 그단스크항의 Baltic Hub와 중부·동부유럽 간 배후 철도망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'24년 12월에 Loconi Intermodal S.A.의 지분 85%를 인수함
 - PSA International의 계열사인 Loconi Intermodal S.A.는 Laude Smart Intermodal과 협력해 Baltic Hub와 우크라이나 간 정기 복합운송 서비스를 '25년 12월부터 제공함
 - 또한 Loconi Intermodal S.A.는 Baltic Hub와 체코의 오스트라바(Ostrava) 권역의 모라비아-실레시아(Moravian-Silesian) 산업권을 연결하는 정기 복합운송 서비스를 '26년 5월부터 제공함
 - Baltic Hub-우크라이나, Baltic Hub-체코 간 철도 기반 복합운송을 위한 환적 거점은 각각 Laude Smart Intermodal의 자모시치(Zamość) 터미널, PKP Cargo International의 파스코프(Paskov) 터미널임
 - Loconi Intermodal S.A.는 폴란드 바르샤바(Warsaw), 라돔스코(Radomsko) 지역에 자사 인터모달 터미널을 운영함과 동시에 7개 파트너사의 인터모달 터미널을 통해 복합운송 서비스를 제공 중임
 - 즉 PSA International은 Loconi Intermodal S.A.의 내륙 복합운송 운영역량과 중부·동부유럽 주요 파트너사와의 연계를 통해 Baltic Hub의 배후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음

- ▶ Loconi Intermodal S.A.는 즈바시네크(Zbąszynek) 인터모달 터미널 구축을 통해 자사의 복합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도모
 - PSA International은 항만 내 터미널 운영과 내륙 복합운송 부문에 대한 사업 확장을 연계해 Node-to-Network 전략을 추진함
 - 이에 따라 Loconi International S.A.는 자사의 인터모달 터미널을 추가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'26년 6월, 폴란드 즈바시네크 인터모달 터미널을 착공함
 - 해당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EU 공동재원 2,000만 달러가 투자됐으며, Loconi Intermodal S.A.는 EU 교통사업센터(Centre for EU Transport Projects, CUPT)와 공동자금 지원 협약을 체결함
 - 해당 인프라는 9.4헥타르의 부지에 조성되며, 4개 하역선로를 통해 2편의 화물 열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됨
 - 또한 4,500TEU 규모의 장치장과 전기식 RTG 크레인 2기 등 저공해 하역장비가 투입될 예정임
 - 더욱이 즈바시네크는 유럽 횡단 운송 네트워크의 E20 철도 노선과 A2 고속도로, S3 간선도로와 근접해 인터모달 거점으로서의 높은 입지 경쟁력을 보유함

즈바시네크 인터모달 터미널 예상 전경



자료: <https://railmarket.com> (검색일: 2026.07.07.)

- **즈바시네크 인터모달 터미널 구축은 PSA International의 내륙운송 사업 확장과 EU의 운송 부문 탈탄소화에 기여**
 - 이 인터모달 터미널은 즈바시네크 중심의 폴란드 서부와 배후권역의 공급망 효율성을 개선하며, 주요 운송 경로에 대한 혼잡 완화에 기여함
 - 또한 Loconi Intermodal S.A.의 즈바시네크 인터모달 터미널 확보는 PSA International의 Baltic Hub 컨테이너 물동량 유치 기반을 강화할 것임
 - 더 나아가 Baltic Hub와 내륙 배후지 간의 저탄소 물류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
『국제물류 정보포탈』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 안내



KAKAO 채널 등록하기



1 카카오톡 검색창에 '국제물류정보포탈'을 검색합니다.



2 제일 오른쪽에 있는 '친구추가 아이콘'을 클릭합니다.